

2010년 민주당대표선거 분석

李 鎮 遠* · 高 選 圭**

(e-mail: tohokugo@hanmail.net)

目 次

- I. 서론
 - II. 민주당 당대표선거의 배경: 왜 칸 수상과 오자와 전 간사장인가?
 - III. 민주당의 대표 선출 방식과 그 특징
 - IV. 2010년 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의 특징
 - V. 민주당 대표선거의 쟁점과 정책대립
 - VI. 선거결과와 승패요인
 - VII. 민주당 당대표선거의 정치적 의미
-
-

I. 서론

2009년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승리로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선거에 의한 혁명’ 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정권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관심 속에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문제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토야마수상의 정치자금문제, 후텐마기지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 등은 결국 2010년 6월 총리교체를 가져왔다. 2009년 총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권 매니페스토(manifesto)를 둘러싼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은 실현의 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2010년 참의원선거에서 칸 수상은 갑작스럽게 소

비세 인상문제를 언급하면서 참패하고 말았다. 선거이후 소비세인상문제는 물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불안과 엔고(高) 상황에서 정치공백이 만들어 진다는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내 권력투쟁을 위한 당대표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대표 선출방식은 전당대회나 의원총회가 아니라 당원이나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경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당대표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가는 칸 나오토(菅 直人) 수상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이 출마하였다. 더구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문제로 2010년 6월 하토야마 총리와 동반퇴진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당 분열의 우려는 물론 당대표 출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된 속에서 양 후보자가 직접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일까. 이번 민주당 대표선거는 민주당의 내부사정 이외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 선거인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므로 선거결과에 따라 수상이 바뀌게 되고 정책방향도 궤도수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궤도수정을 하려고 한 것일까. 일본정치에서 이번 민주당 당대표선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다면, 이번 민주당 당대표선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정당의 대표경선을 분석하는 의미 이상의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제기된 다양한 사회, 정치경제적 쟁점은 현재 일본사회가 당면한 현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현재 일본정치가 직면한 제반문제와 이것을 둘러싼 정책적 대응, 향후 지향점을 예측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의 당 대표선거의 배경, 절차, 정치적 대립구조, 선거결과 그리고 대표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목적을 가진다.

II. 민주당 당대표선거의 배경: 왜 칸 수상과 오자와 전 간사장인가?

민주당은 야당시절 자민당정권의 잦은 총리교체를 비난해 왔다. 그리고 민주당정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여 왔다. 일본의 경제상황이 엔고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못하고 더구나 정치공백의 발생이라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10년 9월 민주당 당대표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것도 2010년 6월에 취임

한 칸 수상의 임기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대표선거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당 운영방식을 둘러싼 민주당의 창당파와 오자와 그룹간의 갈등이다. 둘째, 정책노선을 둘러싼 양 그룹간의 대립이다. 셋째는 선거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 등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의 민주당은 2003년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1996년 하토야마와 칸 수상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이다. 자유당은 1998년 오자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한 이유는 정권교체와 보수양당제라는 지향점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당은 태생부터가 다른 정당이다. 민주당은 하토야마와 칸 이라는 정치가를 주축으로 30대 젊은 정치가가 다수를 점한 젊고 자유스런 당풍으로 시작한 정당이다. 당내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기본 운영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목표로 창당되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당은 오자와의 카리스마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정치자금을 토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점점 세를 확장해가는 정치자금과 국회의원의 숫자(金와 數 논리) 논리를 강조한다. 이념이나 정책적 비전의 공유보다는 오자와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토대로 마련된 정당이다.

오자와가 2003년 민주당과 합당할 당시 민주당에 흡수합당을 수용한 이유는 오자와의 정치적 목표가 정권교체에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활용하여 당내 다수파를 만드는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오자와 정치스타일은 보텀 업(bottom-up) 지향적인 의사결정방식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당세가 확장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잠재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2001년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으로 자민당과 대립하기 위한 조직 강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 강화 시기에는 오자와적 정책결정방식이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오자와는 강권적인 정당운영에 대한 이미지 탈피와 조직 융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내 사민당 그룹, 사회당 그룹의 요코미치(横路) 등과 정책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오카다(岡田) 대표와 마에하라(前原) 대표시기에 표면화된 민주당의 정치적 미숙성, 젊은 당수에 대한 실망 등은 오자와 대망론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이 풍부하고 돌파력, 추진력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오자와의 정치적 수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오자와의 활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2006년 당대표선거에서 오자와가 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하토야마, 칸, 그리고 오자와에 의한 ‘트로이카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7년 참의원선거를 거치면서 오자와의 선거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선거를 오자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업호별보조금 지급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생활정치’에 기반 한 오자와식 현물제공형 정책(ばらまき政策)은 2009년 총선거에서도 효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공천과정에서도 오자와가 독단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여 150명 정도의 오자와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2009년 민주당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내각은 하토야마, 당권은 오자와라는 ‘이중권력구조’를 형성하여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더구나 민주당의 진정(민원)접수창구를 간사장실로 일원화하고 2009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직접 관여하면서 오자와의 강권적인 정권운영에 대한 민주당 창당파로부터 반발이 강해졌다. 오자와의 정당운영방식에 대한 민주당 창당파의 반발은 2010년 6월 하토야마수상 퇴임을 계기로 ‘정치자금과 결별하는 민주당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명분에 따라 오자와를 당 간사장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민주당내 오자와에 대한 비판론은 하토야마와 동반퇴진으로 귀결되었고 이후 칸 수상체제에서 탈 오자와 노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탈 오자와 노선은 민주당 운영방식과 정책노선의 변경으로 구체화 되었다. 칸 수상 체제에서 탈 오자와 노선이 진전되면서 오자와 그룹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2010년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오자와가 출마하게 되었다.

둘째는 정책노선을 둘러싼 양 그룹간의 대립이다. 오자와는 전형적인 자민당식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진작을 추구하는 재정출동론자이다. 이번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오자와는 2조 엔의 재정출동과 자녀수당, 농업호별보상금제도를 통해 지방이나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지방이나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내수주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녀수당은 2012년에는 2.6만 엔 전액 지원이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업호별보상금제도는 어민에게도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도부현이 고속도로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방의 건설업체가 이를 수주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이다. 정치스타일뿐 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입장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2009년 총선거의 민주당 매니페스트의 수정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칸 수상은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오자와 전간사장은 2009년 민주당 매니페스트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립은 민주당의 정책노선 수정에 대한 양자 간의 대립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 칸 수상도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도시형 정당에서 지방에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기존의 자민당 식 정책노선보다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사회보장정책이나 국민전체의 공

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는 선거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 등이다. 2006년 오자와당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민주당 선거체제의 구축이다. 지방순회, 지방 지지조직 확대를 위하여 자민당식 선거체제(どぶ板)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공공사업 중심의 정책공약과 현물제공형 공약을 중시하는 오자와식 선거방식은 기존 민주당 창당과 세력에게는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2009년 선거과정에서 오자와 간사장은 노조는 물론 기업방문을 강조하였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자민당 식 지역조직과 선거체제 구축을 표방하였다. 즉, 정치가 개인의 인기나 정책노선을 가지고 선거를 치루는 것이 아니고 조직 동원과 이익배분을 통한 선거체제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민주당창당과 그룹은 정당의 정책적 이념이나 비전 그리고 정책적 대안(매니페스토)을 통한 당원이나 유권자의 포섭을 토대로 한 선거체제를 원한 것이다.

결국 2010년 민주당의 당대표선거는 2009년 9월 민주당정권 출범 이후 당내에서 오자와 스타일의 정당운영과 정책운영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면서 오자와 전전사장 진영과 칸 수상 중심의 민주당 창당과 진영 간의 권력대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정치자금문제로 동반퇴진 한 오자와를, 그리고 민주당이 자민당 시절의 잦은 수상교체에 대한 정치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III. 민주당의 대표 선출 방식과 그 특징

1998년 창당 당시 ‘투명, 공평, 공정한 규칙’에 바탕을 둔 사회 건설을 목표로 1) 하였던 민주당은 기본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일본의 인구가 절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2010년을 목표 연한으로 그 기본정책을 디자인하였다. 지금 납세자인 소비자, 생활자인 국민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심판을 받아 우리들과 공동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호소한다.’라고²⁾ 한 것처럼 대표 선출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대표선거규칙’에 따르면 대표선거권을 가지는 유권자는 ‘당원 및 서포터’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체 의원’ ‘정당 조성법에 기초한 당 소속 국회의원’로 되어 있다.³⁾ 이 중 당원 및 서포터로서의 유권자는 중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 기본이념(http://www.dpj.or.jp/governance/policy/senkyo_policy.html (2010/09/16))

2) 기본정책(http://www.dpj.or.jp/governance/policy/senkyo_policy.html (2010/09/16))

의 소선거구 총 지부별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있지만 민주당 대표선출에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참여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에게 대표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은 2000년 대표선출부터이다. 2000년 9월에 실시된 대표선거에서 민주당 총지부 소속당원과 등록비 1000엔 이상 납부한 서포터를 유권자로 인정하였다. 그 이후 2002년 9월 대표선출, 2006년 9월 대표선출, 2008년 9월 대표선출 그리고 2010년 9월 대표 선출에 당원 및 서포터로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의 대표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2010년과 같이 복수의 후보자가 경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원 및 서포터가 대표선출에 의사를 반영하였던 것은 2002년 대표선출과 2010년 대표선출 뿐이다. 그 이외는 단일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물론 당원 및 서포터가 대표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당원 서포터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진 2000년 9월 대표선출에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집계하여 인구비례별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343포인트였다. 소속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포인트가 364포인트인 것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만 당원 서포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지하는 권한은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2002년 9월 대표 선출에서는 소속의원 366포인트, 자치체 의원 47포인트, 공인예비후보자 83포인트에 함께 당원 서포터는 320포인트를 차지하였다. 2006년 9월 대표 선출에서는 소속의원 388포인트, 국정선거 공인 예비 후보자 112포인트, 자치체 의원 100포인트와 당원 서포터는 320포인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0년 대표 선출에서는 소속의원이 822포인트, 지방자치체 의원이 100포인트이며 당원 서포터는 300포인트였다.

또한 민주당의 대표 선거가 모두 당원 서포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치러진 것은 아니다. 1998년 창당 이래 14번의 대표 선거가 있었지만 민주당 대표선거규칙에 의해 선거가 행해진 것은 7번이고 특례규칙으로 의원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였다. 특례규칙에 의한 대표 선출은 대표가 임기 중 사임으로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행해졌다.

이상과 같이 당원 서포터가 역대 민주당 대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당원과 서포터는 당 조직을 떠나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2010년 9월의 대표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여론의 중요

3) 민주당 대표선거규칙 제4조 (http://www.dpj.or.jp/governance/policy/senkyo_policy.html) (2010/09/16)

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대표 선출 일정에 잘 나타나 있다. 2010년 대표선출 주요 일정을 보면 선거를 공고 한 이후 기자 클럽 토론회를 비롯하여 후보자들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가두 연설회를 개최하여 주요 도시인 도쿄, 오사카, 삿포로에서 가두연설을 하였으며 가두연설을 마친 후 우편투표를 마감하여 대표 선출에 가능한 한 여론을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대표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속의원은 1인 1표로 2포인트를 부여하고 당원 서포터는 선거구 총지부에 각각 1포인트로 총 300포인트를 부여한다. 당원 서포터의 경우 우편투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의 포인트를 획득한다. 자치체 의원의 경우 총 100포인트를 부여하며 우편투표의 결과 득표수를 동트(d'Hont) 방식으로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2010년 민주당 대표 선거의 포인트는 총 1,222포인트로 소속의원 411명의 822포인트, 당원 서포터 300포인트, 자치체 의원 100포인트로 소속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7.26%로 당원 서포터가 차지하는 비중 24.55%의 2배 이상이었다.⁴⁾

<그림 1> 2010년 민주당 대표 선출 방식

유권자	소속의원 411명 (1인1표 2포인트)	지방자치체의원	당원 서포터
포인트	411 × 2 = 822	100	300
합계	1,222포인트		
	과반수획득	과반수 획득자 없는 경우	
		소속의원에 의한 상위 2인 결선 투표	
당 선			

IV. 2010년 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의 특징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은 민주당의 대표 선출 방식의 특징과 더불어 2010년 9월의 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은 다른 대표 선출과정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4)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당원 서포터는 229,030명으로 1인당 행사한 포인트는 0.00131에 지나지 않는다.

있다.

첫 번째는 대표를 선출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같은 해에 치러진 대표선출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등장하여 경선을 치렀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2004년 5월과 9월, 2006년 4월과 9월의 경우 2010년과 유사한 경우였는데 그 때에는 모두 전임 대표가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무(無)투표로 대표에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2010년의 경우는 전임 대표임과 동시에 수상인 칸 나오토(菅直人)씨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가 도전을 하였다. 종전의 관례와는 다르게 취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대표 겸 수상에 대한 오자와 이치로씨의 도전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전문가 의견 조사 중 칸 나오토씨를 지지하는 이유로 ‘수상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⁵⁾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씨가 작은 조직을 갖고 있는 칸 나오토씨에게 패배를 했다는 점이다.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칸 수상의 진영은 약 110명이고 오자와씨는 당내 최대인 오자와 그룹 150명과 하토야마 수상 그룹의 지지를 받아 단순계산으로는 칸 수상의 열세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칸 나오토씨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구사회당 그룹을 포함하더라도 칸 나오토씨의 민주당내 조직표는 140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오자와 이치로 단일 그룹의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이러한 경향은 마이니치 신문에 대표선거 직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어져 칸 나오토씨 지지가 195명, 오자와 이치로씨 지지가 200명, 미확정의원이 20명이었다.⁶⁾

그렇지만 결과는 소속의원 득표에서도 칸 나오토씨가 근소하지만 6명을 앞섰다.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의 표가 모두 칸 나오토씨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종전의 조직에 얽매인 민주당 의원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민주당 대표 선출에 계파별 조직 표보다는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월 4일과 5일의 아사히(朝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로 수상에 적당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칸 나오토씨가 65%인 것에 비해 오자와 이치로씨는 17%에 지나지 않았다. 오자와 이치로씨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정치자금 문제로 간사장을 사임하고 나서 대표 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가 75%, ‘납

5) [http://mainichi.jp/select/seiji/minshudaihyousen/archive/news/2010/09/20100913\(2010/09/20\)](http://mainichi.jp/select/seiji/minshudaihyousen/archive/news/2010/09/20100913(2010/09/20))

6) 주5)와 같음

득할 수 있다'의 1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 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칸 나오토씨와 오자와 이치로씨 중 누가 승리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56명 중 38명이 칸 나오토씨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오자와 이치로씨는 1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문가들의 성향의 좌우를 불문하고 나타난 결과로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일본 여론이 칸 나오토씨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

<그림 2> 2010년 민주당 대표 선거 결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서포터스	합계
칸 나오토	412포인트 (206표)	60포인트 (1,360표)	249포인트 (137,998명)	721포인트
오자와 이치로	400포인트 (200표)	40포인트 (927표)	51포인트 (90,194명)	491포인트

<출처;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dpj.or.jp/governance/policy/senkyo_policy.html (2010/09/16)>참조 작성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여론을 확실하게 반영한 것이 자치체의원과 당원 서포터의 투표결과이다. 자치체 의원 투표 결과를 보면 총 유권자 2,382명 중 투표자 수는 2,294명이고 이중 1,360명이 칸 나오토씨에게 927명이 오자와 이치로씨에게 투표하여 포인트로는 칸 나오토씨가 60포인트 오자와 이치로씨가 40포인트를 획득하였다. 당원 서포터 투표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득표율에서 칸 나오토씨가 66.87%를 얻었고 오자와 이치로씨는 39.38%를 얻었다. 그렇지만 포인트에서는 칸 나오토씨가 300포인트 중 249포인트를 획득하여 83%의 획득률을 보여 오자와 이치로씨의 17%를 크게 앞섰다.

당대표선거 결과, 칸 나오토씨는 당초 민주당내 그룹 별 소속의원 수 등을 감안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자와 이치로씨에게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즉 2010년 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대표 선출 과정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계파가 좌우하는 과거의 대표선출 관행을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http://www.asahi.com/special/08003/TKY201009050307.html>(2010/09/20)

8) 주5)와 같음

V. 민주당 대표선거의 쟁점과 정책대립

이번 2010년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칸 수상과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차이 뿐 만 아니라 정치스타일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과 노선을 견지해왔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칸 수상, 오자와씨는 자민당 다나카(田中)파 출신의 정치가라는 점에서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치스타일에서도 칸 수상은 ‘합의 형성’과 ‘확대노선’을 견지해 온 반면 오자와 전간사장의 정치노선은 ‘순화노선’이다. 칸 수상은 이전 사회시민연합(사민연)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신당 사카가케, 구 민주당, 신민주당 그리고 2003년 자유당과의 합병을 통해서 정치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스타일의 정치가이다. 물론 정치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이에 대하여 오자와 전간사장은 순화노선과 자신의 조직 내 헤게모니 유지를 위하여 조직의 해체와 재조직을 반복해 옴으로써 「壊し屋」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1993년 미야자와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을 결성하였다. 1993년 총선거에서 신생당은 승리하여 비자민연립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후 비자민연립정권 내에서 사회당 배제를 획책하여 이를 계기로 신당사키가케와 사회당이 연립이탈을 선언하고 자민당과 사회당, 사키가케간 연립정당이 성립되었다. 1994년에는 신진당을 창당하였고 1997년에는 자유당을 만들어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연립정권에 참여하였다.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이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립정권 잔류파는 보수당으로 분리되었다.

후보별 주요 정책 비교

菅直人	주요 정책	小澤一郎
-실현이 곤란한 것은 설명과 이해를 전제로 수정가능	2009년 총선 정권공약	-정권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되어야 함
-신성장전략을 실현 -국내고용의 확대 -환경, 의료, 개호분야 예산투입	경제정책	-예비비 2조 엔을 전액집행: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수주도의 성장: 농업개별보상금, 자녀수당 지급 등 -시장개입을 포함한 엔고 대책 -고속도로망 조기 정비
-소비세인상은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을 전제로 논의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발본개혁을 검토	재정 건전화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삭감 우선 -정부예산 207조 엔을 재편성

-행정쇄신회의의 강화 -인사원 권고를 넘어선 인건비 삭감 -공무원제도 개혁 가속	행정개혁	-낙하산인사 전면금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독립행정법인 폐지, 민영화
-독신 고령자 대상으로 한 개호 서비스 정비 -보육 서비스 강화와 아동 학대 방지	사회보장	-최저 보장연금(월액7만 엔) 실현 -의료·개호·생활보호재원을 지방으로 일괄이전 -아동수당의 2012년도 전액 지급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지방의 정부기관의 통폐합 -지역주권 -보조금철폐와 자주재원화 -임업재생을 통한 지역고용창출	지역주권	-지방보조금의 일괄 교부금화 -지방의 정부기관 폐지 -도도부현이 고속도로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
-‘부처이기주의 및 영영의식’의 타파 -예산삭감을 직접 지휘 -국가 전략실의 국으로 격상	정치주도	-관료의 국회답변 금지 -정부 여당 일원화와 내각 강화
-정책별 부분연합	국회운영	연립형태변화를 통한 다수파 형성
-당 자금은 각 지역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배분 -민주당 정무조사회 부활	당 운영	진정처리 일원화

<毎日新聞 2010년 9월 2일자를 중심으로 재 작성>

결국 2003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당시에 자유당의원은 20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오자와씨의 정치스타일은 순화노선을 통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기기 위하여 정당을 해체, 재조직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비관용을 특징으로 하는 오자와의 정치스타일은 톱 다운 방식의 조직문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오자와 스타일의 정치문화는 이번 2010년 민주당대표선거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치스타일뿐 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입장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2009년 총선거의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수정문제가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쟁점화 되었다. 이에 대해 칸 수상은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오자와 전간사장은 2009년 민주당 매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 대한 견제이다.

소비세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칸 수상은 사회보장재원마련을 위해서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인상 논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자와는 선거에서 세금을 쟁점화 하는 것에는 반대이다. 오자와는 원래 증세주의자이다. 1994년 오자와가 출간한 『일본개조계

획』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소비세를 10%로 인상해야 한다는 증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신진당 당수시절부터 입장변화가 보이는데 1996년 총선거에서는 3% 유지를 주장하였다. 1998년에는는 참의원선거에서는 5%로 인상된 소비세를 종전의 3%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선거에서도 소비세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로 칸 수상은 소비세 인상 반대론자였으나 민주당 정권에서 재무상으로 취임하면서 찬성론자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세수가 1990년에 60.1조 엔에서 2010년 37.4조 엔 정도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오자와는 전형적인 자민당식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진작을 추구하는 재정출동론자이다. 이번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오자와는 2조 엔의 재정출동과 자녀수당, 농업호별보상금제도를 통해 지방이나 가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이나 가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내수주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녀수당은 2011년 2만 엔, 2012년에는 2.6만 엔 전액 지원이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칸 수상은 환경, 의료, 개호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창출을 중시하며 아시아시장과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지역진흥정책 또는 지방주권과 관련해서 칸 수상과 오자와 전간사장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자와 전간사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과 부의 분배를 강조한다. 제한적 조건이 붙어 있는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괄교부금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지역주권 확립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칸 수상은 지역주권과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보조금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칸 수상은 임업재생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자와 전간사장과 차별화된다. 칸 수상의 지역진흥정책과 지방주권문제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도시형 정당에서 지방에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문제나 외교문제와 관련해서 오자와 전 간사장은 미일동맹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기본 축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후텐마기지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주민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목표로 오키나와현은 물론 미국정부와도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키나와 이외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는 실전부대의 불필요론을 주장한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기본으로 하고 미일중 관계는 정삼각관계가 바

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칸 수상은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한다. 일본의 안보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일관계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텐마 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미일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행안을 고수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그리고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칸 수상은 야당 당수 때와는 매우 다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1년 7월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해병대의 미국 내 영토로 철수를 주장하였다. 2003년 5월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교는 미국에 종속적인 성격이 강하여 ‘금붕어의 배변(金魚のフン)’과 같다고 미국 추종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 수상취임이후 현실노선으로 급선회하였다. 미군은 일본의 안전은 물론 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에도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인식하고 억지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였다. 소비세인상문제와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문제에서 칸 수상의 현실주의 노선으로의 선회는 리더십의 부재와 정책적 색이 없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10년 당대표선거 칸 수상의 리더십 부재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에서 관료주도의 정치행태를 정치가 주도의 정책결정 및 정치행태로 전환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이후 정치가주도의 정치는 퇴색되어 자민당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事業仕分け, 예산편성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센카쿠열도 충돌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인 선장 석방문제를 법무성과 오키나와 검찰지청에 떠 남기는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치가 주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일련의 정치양태에 대하여 정치가 주도의 정치 회복을 명분으로 칸 수상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민주당의 향후 정치스타일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정치스타일도 대립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민주당의 정책결정이나 정당운영이 소수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자와 간사장시절 각 지역으로 올라오는 진정처리를 간사장실로 일원화하거나 공천이나 정당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오자와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일어났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오자와 간사장이 공개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자와 전간사장의 독단적인 당 운영은 탈 오자와 노선의 지향과 오자와 그룹과 반 오자와 그룹간 정치적 충돌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번 선거에서 오자와의 의원 수와 돈(數와 金)을 중시하는 정치스타일은 전형적인 자민당 식 과벌논리로 구시대 정치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칸 수상은 오자와 전간사장의 정치스타일을 과벌식 의원 수의 논리와 돈을 중시하는 구

시대 인물과 정치양태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여론의 동조를 얻게 되었고 칸 수상에 승리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오자와 전간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문제 때문에 비서와 의원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를 이유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설명 책임 부족은 이번 선거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였다. 결국 오자와 전간사장의 정치자금문제는 검찰심사회의 기소의결로 인해 항소를 한 상태이다. 오자와의 정치자금문제는 당대표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심사회의 기소 가능성 때문에 현직 수상이 기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의 정치윤리위원회 출석문제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이번 당대표선거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VI. 선거결과와 승패요인

이번 선거에서는 당락을 좌우한 것은 당원 · 서포터즈의 투표이다. 개표결과 칸 수상은 249 포인트, 오자와 전 사장은 51포인트를 얻어 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0년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등록한 당원 · 서포터즈의 수는 342,493명이었다.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당원 · 서포터즈는 229,03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칸 수상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37,998명, 오자와는 90,194명으로 나타났다. 득표차이보다는 많은 포인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대표선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당대표선거에서는 전국의 300개 소선거구별로 각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각 선거구에 소속된 당원 · 서포터즈가 투표하여 이긴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부여된 포인트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득표수보다 큰 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자 당원 · 서포터즈의 득표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자와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은 이와테, 아오모리, 도야마, 이시가와 후쿠이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 등이다. 동북지역의 출신지역과 그 주변, 그리고 농촌지역, 호쿠리쿠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오키나와 지역은 후텐마기지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지역은 유일하게 양 후보자가 2 포인트씩 차지하여 비긴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칸수상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수상이 지역에 할당된 모든 포인트를 차지한 도도부현은 야마가타, 후쿠시마, 군마, 기후, 시즈오카, 미에, 시가, 효고, 와카야마, 시마네, 오카야마, 야마구치, 토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고치, 후쿠오카, 사가, 구마모토 등이다. 특히 시코쿠지역에서는 칸수상이 13 포인트 전부를 차지하였다. 도카

이 지역에서는 32 대 1, 긴키 지역은 46 대 2, 동경지역은 22 대 3, 홋카이도 지역은 11 대 1로 나타났다. 당원 · 서포터즈 투표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영향에 따라 좌우 될 수도 있으나 홋카이도 지역은 하토야마 전수상이 오자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자와 후보의 포인트는 많지 않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칸 후보자가 206명에게 지지를 획득하여 412 포인트, 오자와 후보는 200명의 지지를 얻어 400명 포인트를 차지하였다. 선거운동 전개 과정에서 오자와 후보는 오자와 그룹 150명, 하토야마 그룹 50명의 지지를 받았다. 개별적으로 오자와 후보를 지지한 상황을 고려하면, 양 그룹이외의 의원에게 별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칸 후보는 칸 그룹 40명, 마에하라 그룹 40명, 노다 그룹 30명 등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천명하였으나 나머지 그룹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투표에서도 칸 후보가 승리한 것은 이외의 결과로 일컬어진다. 민주당내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의원선거에서 명암을 좌우한 것은 당선 초년생들이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초년생 중에서도 오자와 후보의 지원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적은 신인 의원들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투표에서 칸 수상이 승리한 것은 예상외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오자와 후보가 전체의원 411명의 거의 반에 가까운 의원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향후 칸 수상의 정당 내 지지기반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칸 수상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칸 수상에게 유리한 여론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투표선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민주당내 이해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여론의 동향을 중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당대표 선거는 통상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리에 따르면, 오자와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원 · 서포터즈가 당 대표선출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론은 당내 정치는 물론 수상 선출이라는 정치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일본정치에서 여론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여론의 논리와 다른 나가타초(永田町)의 논리라는 일본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부각되었다. 당대표선거에서 어떤 논리가 관철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이번선거에서 여론의 논리가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선거는 여론의 영향력

을 입증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가들도 나가타초(永田町)논리가 아니라 국민여론의 입장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선거에서 칸 수상의 승리는 수상에 대한 지지라는 의미보다는 오자와 전간사장에 대한 ‘배제’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칸 수상에 대한 ‘소극적 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칸 수상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가 더 크다. 오자와 후보자의 구정치적 행태와 정치자금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수상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유권자들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오자와 후보를 압박하였으나 오자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오자와 후보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후보하고 일정 정도 득표에 성공한 점은 반대로 칸 수상의 약점이기도 하다. 리더십의 부재와 관료정치로 복귀, 2009년 총선거 공약의 미진함 등에 대한 비판은 향후 칸 수상이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VII. 민주당 당대표선거의 정치적 의미

2010년 민주당 당대표선거는 단순히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과정이나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노선 및 정당운영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 선거였다고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본정치의 존재양태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논쟁과 합의가 이루어진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조직형태, 매니페스토문제, 당 재정운영문제,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여야당이 역전되어 있는 의회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졌다. 당대표선거에서 칸수상이 승리하면서 수상의 권력기반이나 정당성도 훨씬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정책노선이나 정치운영의 방향은 칸수상이 대표선거에서 제기한 개방적이고 깨끗한 정치와 정치문화를 표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돈과 의원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정치문화로부터 결별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2010년 하토야마수상의 퇴진 때에 제기한 불투명한 정치자금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정치를 표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운영스타일이나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을 주도한다는 측면이 정권교체의 의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므로 당내를 물론, 미디어 그리고 국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가의 재정문제, 미일관계를 포함하여 후텐마 기지문제, 경제성장전략, 소비세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정문제, 소비세 인상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전략 등에 대한 정치사회적 방향설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오키나와기지문제를 포함한 미일관계는 향후 일본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11월 28일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였다.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정권이 현행 안을 강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지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정치의 패러다임전환과 관련하여 오자와적 구 정치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세대교체 추진, 합의형성과 클린정치 요구가 이번 당대표선거를 통해 일본정치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오자와 후보의 정치자금문제와 이에 대해 설명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정치행태는 구시대적 행태로 비판받게 되었다. 더구나 오자와 후보자의 톱 다운형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정치자금을 무기로 의원들을 끌어 모으고 의원 수를 정치적 자원으로 전횡을 행사하는 오자와적 정치스타일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낙인을 찍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도 이러한 정치행태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당대표선거에서 칸수상이 승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였고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선거를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의원총회가 아니라 당원과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개방적 형태로 치르게 된 것은 향후 일본정치의 의사결정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선거를 통해 일본국민들은 민주당식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스타일과 참여정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 당대표선거는 민주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만들어 낸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2010년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나가쵸(永田町) 정치와 여론의 정치간의 괴리가 부각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국민의 관점에서 일본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강하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나가쵸(永田町) 정치의 논리와 여론의 정치논리 간의 갈등은 여론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결국 여론의 영향력에 나가쵸(永田町) 정치논리가 굴복

하게 되면서 민의의 정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하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당 대표선거를 계기로 여론의 영향력은 일본정치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과시하게 되었다. 향후 일본정치에서 여론의 영향력은 보다 강화 될 것이고 당대표선거는 물론 중요한 정책결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나 여론을 반영하는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정치가 ‘한국 정치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고선규. (2001),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일본연구논총』 제13호.
 고선규. (2009), ‘2009년 일본 총선거와 민주당 정치’ 『의정연구』 제5권 1호.
 이진원. (2009), ‘일본 민주당정권 전망과 정치개혁’ 「일본정경사회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장제국. (2009), ‘2009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분석과 일본정국의 변화요인’ 「일본 총선거 관련 3개 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진창수. (2009), ‘민주당 집권과 향후 일본정치외교의 변화 전망’ 「일본 총선거 관련 3개 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飯尾 潤. (2007), 『日本の統治構造』 中央公論.
 蒲島郁夫. (2004), 『戦後政治の軌跡』, 東京: 岩波書店.
 白鳥 浩. (2009), 『都市對地方の日本政治』 芦書房.
 田中愛治, 河野 勝. (2009), 『2009年なぜ政権交代だったのか』 けいそう書房.
 田原總一. (2009), 『日本政治の正体』 朝日新聞社.
 建林正彦. (2004), 『議員行動の政治経済學』 東京: 有斐閣.
 山口二郎. (2009), 『政権交代論』 岩波書店.
 井上拓也. (2010), 「政権交代と特殊利益・公共利益」 日本政治學會發表演文.
 大川千壽. (2010), 「政治家の政策意識と2009年政権交代」 日本政治學會發表演文.
 小林良彰. (2010), 「2009年政権交代における民意の反映」 日本政治學會發表演文.
 藤村直史. (2010), 「選挙制度と立法組織：民主党鳩山政権下で役職配分」 日本政治學會發表演文.

要 旨

2010년9월14日に行われた民主党の代表選挙では、民主党が抱えている政策的な問題は勿論、日本政治が直面している様々な課題が選挙の争点となった。代表選挙には、菅直人首相と小沢一郎元幹事長が立候補したが、二人の出馬は民主党内の権力争いと政策的対立の性格をもっている。2010年の代表選挙の背景には、党運営をめぐる両陣営の対立と政策路線・選挙システムの構築をめぐる対立が存在していた。2009年の総選挙と予算編成過程で小沢幹事長の独断的な党運営へ非小沢グループが反発し、民主党の政策路線と関連しては、財政問題・政治家主導・日米関係・沖縄普天間問題等をめぐって異なる政策路線を打ち出し、選挙戦が行われた。

代表選挙の結果、菅直人首相が勝利したが、勝敗は党员・サポータの投票が決め手となった。党员・サポータ投票で勝利は世論が反映された結果である。最近、日本政治で世論の影響力は非常に大きくなっている。今回、永田町の政治論理と世論の論理が対立する形で選挙戦が行われたが、結局世論が勝利したのは、日本政治の変化を現している。また、古い政治のアイコンとなった小沢幹事長の敗北は、従来型政治に対する反対と新しい政治へ期待を示している。

キーワード：民主党政権、党代表選挙、菅直人首相、小沢一郎、サポータ投票、
民主党政治の課題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